

## 남성적 규범과 아버지 신념에 따른 30, 40대 아버지의 잠재 프로파일 분석\*

이 슬 기

유 성 경<sup>†</sup>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생

교수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아버지들이 남성규범과 새로운 아버지 신념을 기반으로 몇 개의 잠재 프로파일로 구분되는지 확인하고, 프로파일에 따라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30, 40대 기혼 남성 228명이 분석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4개의 잠재 프로파일로 구분되었다. 둘째, 분류 변인의 특성에 따라 ‘적극적 아버지형’, ‘소극적 아버지형’, ‘힘있는 가부장형’, ‘무심한 가부장형’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가족부양자와 새로운 아버지 신념이 높고 힘과 통제가 낮은 ‘적극적 아버지형’이 양육참여가 가장 높았고, 어머니 문열기가 높고 어머니 문닫기가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성과 아버지 신념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을 통해 아버지 양육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따른 상담 및 심리치료적 개입과 연구의 한계점, 시사점 그리고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새로운 아버지 신념, 남성규범, 양육참여, 어머니 문지기 역할, 잠재 프로파일 분석

\* 본 연구는 이슬기(2019)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성규범과 새로운 아버지 신념에 따른 아버지 유형과 공동양육의 관계’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 02-3277-3911, E-mail : skyoo@ewha.ac.kr

남성의 양육참여에 대한 담론이 사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활발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6.3%로(통계청, 2018) 부모의 다중역할이 불가피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발달 뿐 아니라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꾸준히 보고되면서 양육은 모성만의 영역이 아닌 부성의 영역으로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에 최근에는 부모 모두의 양육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박익새, 남은영, 2015; 채화영, 이기영, 2013).

남성의 양육참여와 부부 공동양육에 대한 관심은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제도와 정책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는 추세다. 2018년 1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근로자의 부성(fatherhood) 권리 보장이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로 등장해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와 양육참여가 기대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또한 아빠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독려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2011년부터 운영하는 ‘100인의 아빠단’, ‘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 캠페인’과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과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부터 운영하는 ‘아빠넷’과 같은 아빠들을 위한 육아포털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성찰하는 아버지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 양육참여에 대한 기대는 저출산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2019년 8월, 통계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이 시

작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저출산의 심각성을 보였다. 이에 최근 정부 부처 유관기관들의 협력으로 결성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저출산의 원인을 삶의 질을 낮추는 성 불평등한 가족역할로 보았으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가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라 남성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젠더의식 개선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동등하며 균등한 부부의 양육이 개인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적 함의를 갖는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새로운 아버지들이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영역을 일과 가정으로 구분짓지 않는 성역할 패러다임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아버지(New Father)’는 공동양육을 분담하며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로 정의되며, 참여하는 아버지(Involved father)로서 자녀의 삶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친밀감을 나누려는 아버지를 의미한다(Lamb, 2000; McLaughlin & Muldoon, 2014). 이는 아버지-생계부양자, 어머니-양육자 모델에서 강조하던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가장(Breadwinner) 역할만 수행하는 전통적 아버지와 다르며, 좋은 근로자가 좋은 아버지를 의미하던 과거의 통념과 구분된다. ‘새로운 아버지’라는 용어는 일상적 돌봄을 수행하는 양육자라는 점에서 돌보는 아버지(Caring father), 양육하는 아버지(Nurturant father), 가사와 양육을 공동의 역할로 인식하며 공동양육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성 평등한 아버지(Egalitarian father)로도 개념화되어(Johansson & Klinth, 2008; Marsiglio & Roy, 2012)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근거와 개념적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사용될 필요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버지로서 현대적 아버지는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은 새로운 아버지상을 논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관점이다(Cannito, 2020). 따라서 새로운 아버지는 아내와는 양육 파트너십을, 자녀와는 친밀감을 교류한다는 점에서 남성의 정서적 자원과 관계기술 발휘를 특징으로 하며, Pleck(1985)은 이러한 아버지의 특성을 양육적이고(Nurturing), 지지적이며(Supportive), 동료애적(Companionate)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현대적 아버지는 자녀와 친밀한 아버지의 모습을 사회문화적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해온 바, 단순한 생계부양자 역할을 넘어 가정에 더 참여하고 자녀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삶을 원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근로자, 남편, 아버지 등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일과 가정에서 성공적인 양립을 위하여 적응적인 아버지상을 형성해 나가는 과업이 불가피하다(Brandth & Kvande, 1998; Finn & Henwood, 2009; Kwon & Roy, 2007; Marsiglio, Day, & Lamb, 2000; Silverstein, Auerbach, & Levant, 2002). 한편, 산업화 이후 일과 사회는 남성의 영역으로, 가정과 돌봄은 여성의 영역으로 분리된 성별 분업화 이후로 아버지의 생계부양자 역할은 현재까지도 가장 지배적인 아버지의 역할로 여겨지고 있어, 잔존해있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남성이 전통적인 규범에 순응하지 않고 새로운 역할을 획득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초래하고 불가피한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나성은, 2014; Pleck, 1998). 따라서 현대 아버지의 정체성 및 역할 갈등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성 역할 이데올로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남성성이 아버지상과 양육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Pleck, 2010), 성 역할 태도와 아버지 신념에 따른 아버지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동으로 양육을 분담하고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개입하면서 친밀감을 나누는 아버지로서의 신념이 높은 새로운 아버지에 가깝거나 부모역할을 평등하게 지각하고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며 어머니-주양육자, 아버지-생계부양자 신념을 거부하는 아버지일수록 높은 양육참여를 예측해 새로운 아버지상과 양육참여 간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유지영, 2018; Bulanda, 2004; Petts, Shafer, & Essing, 2018), Petts et al.(2018)은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와 양육참여의 관계에서 새로운 아버지 신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아버지가 전통적 남성성에 덜 고수되어 있을수록 새로운 아버지상을 더 추구하고 양육 참여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버지상을 추구할수록 온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보이는 표현적 양육(expressive engagement)을 보였다.

현대 아버지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 중에서도 아버지상의 변화가 아버지상의 다양한 양상을 예상케 함에 따라, 최근 젊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아버지 유형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Harrington, Fraone, Lee와 Levey(2016)는 공동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과 양육행동에 따라 성 평등형(Egalitarian Type), 갈등형(Conflicted Type), 전통형(Traditional Type)으로 분류하였으며, Humbred Ladge와 Harrington(2015)은 부양자(Provider), 롤 모델(Role Model), 파트너(Partner), 양육자(Nurturer)로서 아버지 역할 인식에 따라 전통형(Defend Traditional), 양립 추구형(Embrace Synergy), 순응형(Accept Ambivalence)으로 분류하는 등 아버지 정체성이

개인마다 동일하지 않고 유형화되었다. 국내 아버지 유형화 연구로는 아버지 역할 몰입에 따른 유형화, 돌봄 참여 시간과 그 범위에 따른 유형화, 양육 동기와 실행 수준에 따른 유형화가 있으나(김소영, 옥선화, 2000; 조운경, 2011; 차동혁, 2014), 새로운 아버지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앞서 언급한 성 역할 규범과 아버지 신념에 따른 아버지 유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한편, 성 역할 규범은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사회문화적 기대와 압력으로 형성된 규범으로 보는 사회 구성주의 모델에 의한 이론적 관점을 반영한 개념으로, 그 시대에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 실제로 어떠하며 남성 또는 여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형성된 규범(should) 또는 태도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Thompson, Pleck, & Ferrera, 1992). 대부분의 남성규범은 건강,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고통, 도움추구 행동, 부적절한 대처기술이나 역기능적 대처방식, 정서 표현, 성 역할 갈등 등과 관계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결혼생활, 연인 관계, 남성 전업주부의 삶의 만족 등과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이영미, 김정희, 1997; 제연화, 심은정, 2015; Kaya, Iwamoto, Brady, Clinton, & Grivel, 2019), 남성성과 가족 상호작용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남성적 규범과 새로운 아버지 신념에 따라 한국 남성이 아버지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아버지 유형별 갈등요인을 통해 한국 남성이 적응적인 아버지상을 형성하고 공동양육 관계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심리상담적 개입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계부양자 역할을 넘어서 ‘공동양육을 분담하며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로 아버지상이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 있는 30, 40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양육참여의 차이를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남성규범 척도의 5개 하위요인인 남성리더십, 가족부양자, 힘과 통제, 직업-자립, 정서억제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남성적 규범에 순응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단일척도인 새로운 아버지상 척도를 사용하여 새로운 아버지 신념 수준을 측정할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3개의 하위요인인 발달적 지지, 돌보기 및 지도, 함께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라 전통적 남성적 규범이 낮고 새로운 아버지상에 가까울수록 높은 양육참여가 예측되며, 아버지 유형에 따라 실제 양육행동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상과 양육참여 관계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동양육 파트너십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도출한 아버지 유형별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어머니 문지기 역할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양육 관계에서 서로의 양육태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조운진, 2017; Schoppe-Sullivan, Brown, Cannon, Mangelsdorf, & Sokolowski, 2008). 어머니 문지기 역할은 2개의 하위요인인 어머니 문열기와 어머니 문닫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머니 문열기 행동과 태도는 아버지의 높은 양육참여와 관련되고, 어머니 문닫기 행동과 태도는 아버지의 낮은 양육참여와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라 전통적 남성적 규범이 낮고 새로운 아버지상에 가까울수록 어머니 문열기에 대한 아버지 인식이

높고, 어머니 문답기는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어머니 문지기 역할을 통해 아버지 유형별 부부 상호작용을 살펴본다면, 공동양육에서 중요한 부부 파트너십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아버지 역할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변화에서 아버지가 적응적이고 개별화된 아버지상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부부 공동양육 관계를 통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적응적인 파트너십을 실현해 가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의 필요성 및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새로운 아버지 신념과 남성규범에 따라 몇 개의 잠재 프로파일로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2. 각 잠재 프로파일의 비율과 프로파일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잠재 프로파일에 따라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 양육참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

만 6세 이하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전국에 있는 30, 40대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리서치 회사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수집하였다. 영유아기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로서 정체성 및 어머니와 공동양육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영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예측한다는 제언에 따라(김경은, 김연아, 2017; Halme, Åstedt-Kurki, & Tarkka, 2009), 본 연구에서 자녀의 나이를 만 6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3.2세, 여성 30.4세이며,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32.8세(통계청, 2018)임을 감안하여 30, 40대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총 228명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37.75세( $SD=3.64$ )로 30대가 164명(71.9%), 40대가 64명(28.1%)이었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2명(5.3%), 2년제 대학교 졸업이 38명(16.7%),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44명(63.2%), 대학원 이상 졸업이 34명(14.9%)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1명이 124명(54.4%), 2명이 93명(40.8%), 3명이 11명(4.8%)이었으며, 막내 자녀의 나이는 만 3세 이하가 149명(65.4%), 만 4세-만 6세 이하가 79명(34.6%)로 영아기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부부 맞벌이가 116사례(50.9%), 남편 외벌이가 112사례(49.1%)이었으며,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71사례(31.1%)로 가장 많았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50시간 미만이 남편 135명(59.2%), 아내 54명(3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남편은 50-60시간 미만이 56명(24.6%), 아내 30-40시간 미만이 23명(19.8%)으로 많았다. 거주지를 살펴보면, 서울 거주가 68명(29.8%),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67명(29.4%),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거주가 61명(26.8%), 경상도 13명(5.7%), 충청도 10명(4.4%), 강원도 4명(1.8%), 전라도 3명(1.3%), 세종시 2명(0.9%)이었다.

## 측정 도구

### 남성규범

개인에게 형성된 남성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성범(2017)이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판 남성규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남성성이 개인의 본질적 요소나 특질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사회 구성주의 모델에 의하여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규범을 다차원적으로 이론화할 필요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개념도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남성의 성별 규범을 다차원 구조로 밝혀냈으므로 현 시대 상황에 따른 민감성과 특수성을 띠고 있다. 또한 우성범(2017)의 연구에서 구조의 적합도와 요인계수의 적절성, 수렴 및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 하위척도인 남성 리더쉽(11문항), 가족부양자(5문항), 힘과 통제(5문항), 직업-자립(5문항), 정서억제(5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문항이다. 남성리더쉽 문항은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리더쉽을 측정하며(예, '나는 추진력이 있다'), 가족부양자 문항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측정한다(예, '가족에게 생활비를 벌어주는 것은 나의 중요한 역할이다'). 힘과 통제 문항은 여성이나 아내에 대한 권력이나 통제를 측정하고(예, '나의 아내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면 위축될 것이다'), 직업-자립 문항은 직업적인 성취가 중요하다는 규범을 측정하며(예, '직장에서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면 의기소침해질 것이다'), 정서억제 문항은 감정에 대한 불편감을 측정한다(예, '나는 내 감정을 속에만 담아두는 편이다').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전혀 아니다)부터 4점(아주 많이 그렇다)으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사회의 남성규

범에 순응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성범(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2~.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는 .85이었으며, 남성리더쉽 .88, 가족부양자 .85, 힘과 통제 .81, 직업-자립 .67, 정서억제 .84이었다.

### 새로운 아버지 신념

새로운 아버지 신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Gerson(2010)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Petts et al.(2018)이 개발한 New Fatherhood Ideal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척도로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육을 공동으로 분담하면서 자녀의 발달에 개입하고 친밀감을 나누는 현대적인 아버지상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을 번역하기에 앞서 원척도를 개발한 Petts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 척도 사용 허가를 받았다. 번역-역번역 절차를 사용하여 원 척도를 가능한 충실하게 번역한 후,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심리학 전공 석사 졸업생 1인에게 다시 영어로 역번역을 하도록 하였고, 번역-역번역 본을 심리학 전공 교수 1인과 검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분석에 사용하기에 앞서 이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수 값이 절대값 .30을 넘지 않는 두 문항은 기준에 따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6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Field, 2013). 문항의 예로는 '아빠도 엄마만큼 아이 양육에 있어서 비중있게 관여해야 한다' 등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새로운 아버지상에 대한 신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Petts et al.(20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 제거 전 .70, 문항 제거 후 .76이었다.

### 어머니 문지기 역할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운진과 임인혜(2016)가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판 어머니 문지기역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7문항으로 어머니 문열기(9문항), 어머니 문닫기(8문항)로 이루어져 있다. 어머니 문열기 문항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격려하고 촉진시키는 어머니의 태도를 측정하며(예, '아내는 자녀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물어본다'), 어머니 문닫기 문항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방해하거나 비판하는 어머니의 태도를 측정한다(예, '아내는 나의 양육방식을 비난한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6점(매우 자주 한다)의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에서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 상황에서 배우자가 그와 같은 반응을 자주 한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는 .89이었으며, 하위척도를 살펴보면 어머니 문열기 .90, 어머니 문닫기 .91이었다.

###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1999)가 개발한 생산적 아버지 노릇 척도 중 양육참여 영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척도인 발달적 지지(11문항), 돌보기 및 지도(9문항), 함께하는 활동(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26문항이다. 발달적 지지는 자녀의 인지, 사회적 발달을 지지하는 양육행동을 측정하며(예,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돌보기 및 지도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양육행동을 측정한다(예, '자녀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물어본다'). 함께하는 활동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양육행동을 측정한다(예, '자녀와 함께 옷이나 장난감을 사러 간다').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양육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4이었다. 하위척도를 살펴보면 발달적 지지 .88, 돌보기 및 지도 .84, 함께하는 활동 .83이었다.

### 분석방법

먼저 수집된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수 및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남성적 규범에 순응하는 정도와 새로운 아버지 신념 수준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이 몇 개의 잠재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으로 유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하나의 모집단이 성격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를 군집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군집분석이 한 명이 하나의 집단에만 속하는 것과 다르게 각 잠재 집단에 속할 확률을 제시하므로 더 높은 집단 분류의 정확성을 보인다. 또한 통계적인 근거에 기반한 모형 적합도 지수를 평가하여 잠재 집단의 수를 결정하므로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은석, 2018에서 재인용; 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 집단의 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 LMR-L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Entropy와 같은 적합도를 기준으로 최적의 잠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한다(Tein, Cox, & Cham, 2013). AIC, BIC, SABIC는 가능한 적은 모수를 사용해서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모형을 추정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 지수이며, 그 값이 낮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양호하다(Nylund et al., 2007). LMR-LRT와 BLRT는 잠재 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을 비교하기 위한 차이 검증 값으로  $p$ 값이 유의하면  $k$ 개의 잠재 집단을 가진 모형이 채택되고,  $p$ 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 개의 잠재 집단을 가진 모형이 채택된다. Entropy는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대한 정확도를 나타내며 0~1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Entropy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특정 집단으로 분류가 잘 되어 집단 간 구별이 잘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0.8 이상일 경우에는 90% 이상이 제대로 분류되어 모형적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Vermunt & Magidson, 2003; Lubke & Muthen, 2007). 이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모형 적합도 지수를 토대로 이론적 해석이 가능한지를 함께 고려하여 집단을 분류하고 아버지 유형에 대한 최적의 잠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였다. 잠재 프로파일을 분류한 다음, 남성규범의 5개 하위요인인 남성 리더십, 가족부양자, 직업-자립, 힘과 통제, 정서억제에 새로운 아버지 신념을 더하여 총 6개 차원에서 분류된 잠재 프로파일의 형태의 특성을 살펴보고 각 잠재 집단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유형 간에 양육참여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서 어떠한 특성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 프로파일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 문열기, 어머니 문닫기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변인들 간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새로운 아버지 신념과 어머니 문열기와 상관이 높았다. 새로운 아버지 신념은 남성규범의 하위변인 중 가족 부양자와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힘과 통제와는 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 문닫기는 힘과 통제와 서로 상관이 높았으며, 새로운 아버지 신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 잠재 프로파일 분석

#### 잠재 프로파일의 수 결정

잠재 프로파일을 분류하기에 앞서, 몇 개의 잠재 프로파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계적 기준을 고려한 모형 적합도 지수 분석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집단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2개에서 6개로 증가할수록 AIC와 SABIC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BIC는 감소하다가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6개가 되었을 때 증가하였다. Entropy



표 1. 주요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계수

	1	1-1	1-2	1-3	1-4	1-5	2	3	4	5
1. 남성규범	1									
1-1. 남성리더쉽	.62**	1								
1-2. 가족부양자	.45**	.33**	1							
1-3. 힘과 통제	.58**	.16*	-.20**	1						
1-4. 직업-자립	.69**	.42**	.45**	.13*	1					
1-5. 정서억제	.58**	.06	-.06	.35**	.19**	1				
2. 새로운 아버지 신념	-.07	.16*	.48**	-.52**	.11	-.24**	1			
3. 어머니 문열기	.21**	.28**	.26**	-.07	.17**	.05	.40**	1		
4. 어머니 문닫기	.24**	-.07	-.21**	.53**	-.03	.30**	-.48**	-.29**	1	
5. 양육참여	.28**	.38**	.39**	-.09	.27**	-.01	.55**	.53**	-.20**	1
평균	2.65	2.70	3.35	1.97	2.87	2.37	3.70	3.58	2.73	3.80
표준편차	.31	.47	.53	.67	.44	.61	.49	.61	.81	.47
왜도	.31	-.22	-.38	-.45	.08	-.11	.23	-.43	-.08	.19
첨도	-.31	.33	-.62	-.61	.90	-.26	-.31	1.14	-.08	.31

주. \* $p < .05$ , \*\* $p < .01$

표 2. 잠재 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모형 적합도

모형	정보 지수			분류의 질 Entropy	모형비교		잠재 프로파일 분류율 (%)					
	AIC	BIC	SABIC		LMR-LRT	BLRT	1	2	3	4	5	6
2	3532.80	3597.96	3537.74	0.77	0.25	0.00	46.1	53.9				
3	3444.86	3534.02	3451.62	0.80	0.04	0.00	23.2	58.8	18.0			
4	3372.34	3485.51	3380.92	0.87	0.07	0.00	11.8	42.1	28.9	17.1		
5	3329.16	3466.34	3339.57	0.88	0.20	0.00	33.8	12.3	9.6	15.8	28.5	
6	3321.57	3482.75	3333.79	0.83	0.59	0.07	6.1	9.6	18.0	25.4	32.5	8.3

주. LMR-LRT와 BLRT는  $p$ 값을 제시하였음.

수치는 잠재 프로파일 수가 2개인 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0.8 이상을 보이고 있어 분류의 정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종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상의 다양

한 모형 적합도 기준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LMR-LRT 값이 유의하지 않은 2개, 5개, 6개 모형을 제거한 후, 남은 모형에서 AIC, BIC, SABIC가 적은 값을 보이고 Entropy 수치가 좋은 4개의 잠재 프로파일을 포함하는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Jung과 Wickrama(2008)의 제안에 따라 4개 모형의 잠재 프로파일별 분류율을 살펴보았을 때, 최소 비율 기준치인 5%를 만족하고 있으므로 4개

의 잠재 프로파일을 대표성을 가진 집단으로 볼 수 있다.

### 분류된 잠재 프로파일의 특성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잠재 프로파일을 명명하기 위해 표 3과 그림 1에 측정변인에 대한 각 집단의 표준화 평균과 구성 비율을 제시하였다.

표 3.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의 각 하위요인 평균 및 구성 비율

잠재 프로파일	구성비율	평균					
		가족 부양자	정서억제	남성 리더쉽	힘과 통제	직업-자립	새로운 아버지 신념
프로파일 1	11.8% (27명)	-1.58	-0.07	-0.66	0.87	-0.74	-1.41
프로파일 2	42.1% (96명)	0.85	-0.09	0.23	-0.51	0.26	0.58
프로파일 3	28.9% (66명)	-0.50	-0.21	-0.45	-0.37	-0.42	-0.06
프로파일 4	17.1% (39명)	-0.11	0.64	0.70	1.27	0.62	-0.31

주. 평균값은 표준화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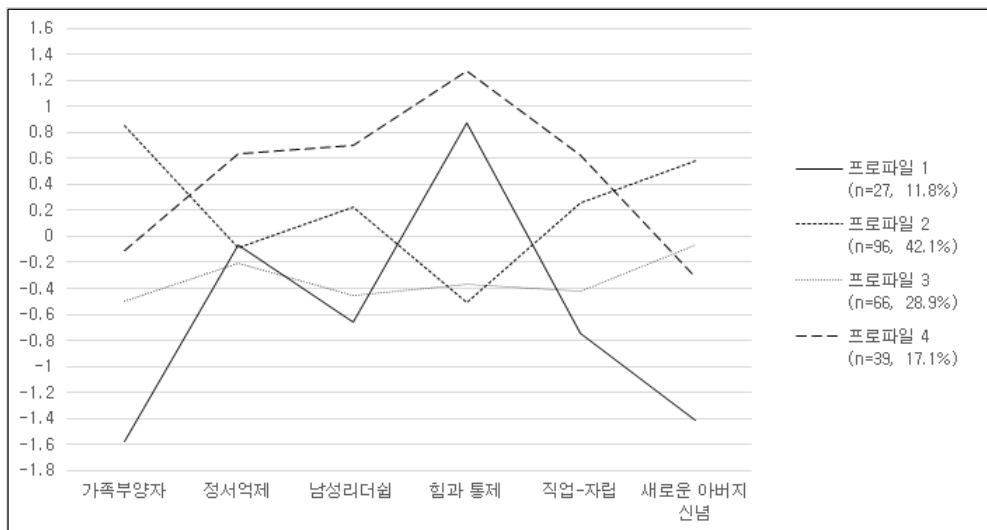


그림 1. 잠재 프로파일별 남성규범 및 새로운 아버지 신념 양상

먼저, 프로파일 2는 전체 228사례 중 거의 100명에 해당하는 아버지가 이 유형에 속하였으며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42.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아버지는 다른 세 집단과 비교하여 가족부양자와 새로운 아버지 신념 수준이 가장 높고, 힘과 통제가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 유형은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로서 공동양육의 필요성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이 유형을 ‘적극적 아버지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로 큰 비율(28.9%)의 아버지가 속한 프로파일 3은 앞서 살펴 본 프로파일 2와 비교했을 때, 정서억제와 힘과 통제는 프로파일 2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에 양육참여 요인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가족부양자, 남성리더쉽, 직업-자립, 새로운 아버지 신념 수준은 평균보다 낮은 특성을 보였다. 프로파일 2에 비하여 공동양육에 대한 태도가 다소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극적 아버지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로, 전체 집단 중 비교적 적은 비율(17.1%)의 아버지가 속한 프로파일 4는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억제, 남성리더쉽, 힘과 통제, 직업-자립을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남성규범의 하위요인들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힘과 통제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특성에 주목하여 이 유형을 ‘힘있는 가부장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 1은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적은 비중(11.8%)을 차지하며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부양자, 남성리더쉽, 직업-자립, 새로운 아버지 신념 수준이 가장 낮았다. 특히 이 유형을 앞서 살펴 본 ‘힘있는 가부장형’

과 비교했을 때, 힘과 통제는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반면에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나 돌보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 이 유형을 ‘무심한 가부장형’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여성이나 아내에 대한 권력 및 통제를 구성하는 힘과 통제 요인이 높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전통적 남성성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새로운 아버지 신념이 낮은 프로파일 4와 프로파일 1은 그 특성에 주목하고자 ‘아버지’ 대신 전통적 아버지의 역할을 내포하는 ‘가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유형별 어머니 문지기 역할 및 양육참여의 관계

아버지 유형 간 어머니 문열기, 어머니 문닫기, 양육참여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Box의 동질성 검증 결과, 집단 간 공분산행렬의 동질성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여(Box'  $M=57.234$   $p<.001$ ), Mertler와 Vannatta(2001)의 제안에 따라 Pillai's Trace 값을 확인한 결과, 전체 유형 간 어머니 문열기, 어머니 문닫기, 양육참여 수준에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illai's Trace  $F(9, 672)=12.922$ ,  $p<.001$ , partial  $\eta^2=.148$ ). 분석 결과, 아버지가 지각하는 어머니 문열기( $F(3, 224)=11.699$ ,  $p<.001$ , partial  $\eta^2=.135$ ), 어머니 문닫기( $F(3, 224)=19.183$ ,  $p<.001$ , partial  $\eta^2=.204$ ), 양육참여( $F(3, 224)=21.829$ ,  $p<.001$ , partial  $\eta^2=.226$ )에서 네 유형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종속변인의 차이가 어느 유형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4. 유형별 문지기 역할 및 양육참여 차이 검정

변수	유형	평균	표준오차	F value	Post Hoc(Scheffé)
어머니 문열기	1. 무심한 가부장	-.62	.13	11.70***	1<3<2 1<4
	2. 적극적 아버지	.18	.07		
	3. 소극적 아버지	-.13	.08		
	4. 힘있는 가부장	.21	.11		
어머니 문닫기	1. 무심한 가부장	.46	.13	19.18***	2,3<1,4
	2. 적극적 아버지	-.29	.07		
	3. 소극적 아버지	-.10	.09		
	4. 힘있는 가부장	.58	.11		
양육참여	1. 무심한 가부장	-.73	.11	21.85***	1<3,4,2 3<2
	2. 적극적 아버지	.22	.06		
	3. 소극적 아버지	-.13	.07		
	4. 힘있는 가부장	.18	.09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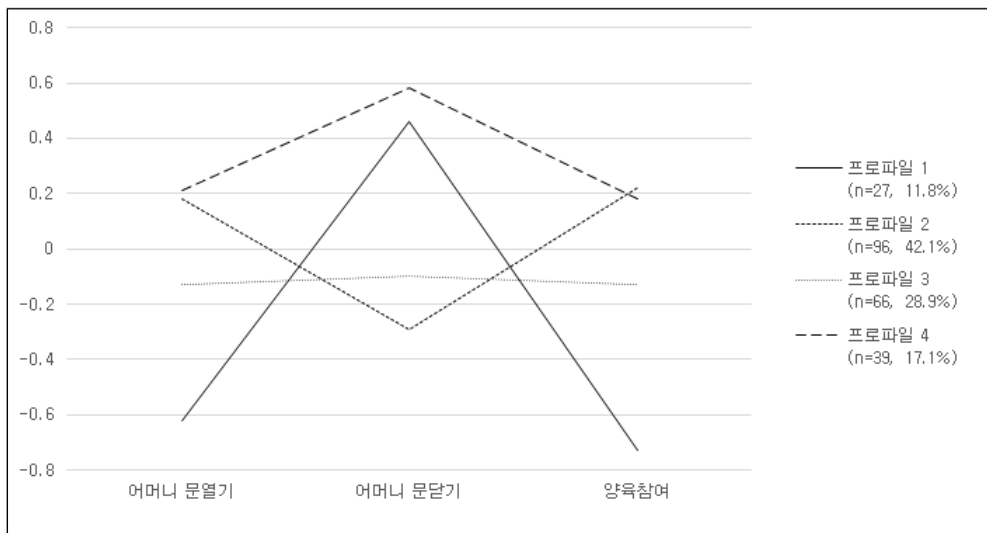


그림 2. 잠재 프로파일별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양육참여 양상

아버지가 지각하는 어머니 문열기는 ‘적극 부장형’ 순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무  
적 아버지형’, ‘소극적 아버지형’, ‘무심한 가 심한 가부장형’에 비해 ‘힘있는 가부장형’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버지가 지각하는 어머니 문단기는 ‘무심한 가부장형’과 ‘힘있는 가부장형’이 ‘적극적 아버지형’와 ‘소극적 아버지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무심한 가부장형’이 나머지 3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고, ‘소극적 아버지형’에 비해 ‘적극적 아버지형’의 양육참여가 유의하게 높았다.

####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차이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분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chi^2$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한 결과, 맞벌이 여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11.20, p<.05$ ). 전체 프로파일 중에서 ‘적극적 아버지형’만이 남편 외벌이(61.5%)가 맞벌이(38.5%)보다 많았고, 그 외 세 개 프로파일에서 맞벌이가 남편 외벌이보다 많았다. 유형별 맞벌이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극적 아버지형’ 56.1%, ‘무심한 가부장형’ 59.3%, ‘힘있는 가부장형’ 66.7%이었다. 연령, 학력, 자녀의 수, 월 평균 가계소득, 고용 형태, 직종,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남성규범과 새로운 아버지 신념에 따라 영유아 자녀가 있는 30, 40대 아버지의 잠재유형을 확인하고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 양육참여에서 유형별 차이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상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아버지

유형을 분류한 결과 4개 집단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 아버지형(n=96, 42.1%)’, ‘소극적 아버지형(n=66, 28.9%)’, ‘힘있는 가부장형(n=39, 17.1%)’, ‘무심한 가부장형(n=27, 11.8%)’이다. 유형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극적 아버지형’은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42.1%)을 차지하며 다른 세 집단과 비교하여 가족부양자와 새로운 아버지 신념이 가장 높고, 힘과 통제가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다. 두 번째로 큰 비율(28.9%)의 아버지가 속한 ‘소극적 아버지형’은 정서억제와 힘과 통제는 ‘적극적 아버지형’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에 가족부양자, 남성리더쉽, 직업-자립, 새로운 아버지 신념이 평균보다 낮은 특성을 보였다. 전체 집단 중 비교적 적은 비율(17.1%)의 아버지가 속한 ‘힘있는 가부장형’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억제, 남성리더쉽, 힘과 통제, 직업-자립을 보였다. ‘무심한 가부장형’은 유형 중 가장 적은 비중(11.8%)을 차지하며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부양자, 남성리더쉽, 직업-자립, 새로운 아버지 신념이 가장 낮았다.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 양육참여에서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 문열기는 ‘적극적 아버지형’, ‘소극적 아버지형’, ‘무심한 가부장형’ 순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무심한 가부장형’에 비해 ‘힘있는 가부장형’이 유의하게 높았다. 어머니 문단기는 ‘무심한 가부장형’과 ‘힘있는 가부장형’이 ‘적극적 아버지형’과 ‘소극적 아버지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무심한 가부장형’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소극적 아버지형’에 비해 ‘적극적 아버지형’의 양육참여가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유형별 특성에 따른 선행연구와의 논

의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부양자, 새로운 아버지 신념, 양육참여가 유형 중 가장 높은 ‘적극적 아버지형’을 통해 근로자-아버지 역할을 양립하는 아버지 유형을 확인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아버지는 Humbred et al.(2015)이 평균 연령 33세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도출한 아버지의 네 가지 역할인 공급자(Provider), 롤 모델(Role Model), 파트너(Partner), 양육자(Nurturer)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부양자로서 공급자(Provider)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파트너(Partner), 자녀를 돌보는 양육자(Nurturer) 또한 자신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아버지들과 공통된 특성을 갖는다. 가족부양자 요인의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계부양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정에 개입하고 가족을 돌보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가족부양이란 경제적 부양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고 가정 일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 유형의 아버지들은 높은 수준의 어머니 문열기와 낮은 수준의 어머니 문닫기를 응답하였으므로 자신의 양육참여에 대한 배우자 지지를 경험하고 있고, 배우자의 통제에 의한 좌절은 적게 경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힘있는 가부장형’은 낮은 수준의 새로운 아버지 신념과 달리 양육참여는 전체 집단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아버지 신념은 ‘적극적 아버지형’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지만 양육참여 정도는 ‘적극적 아버지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유형의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차이가 있으며, 실제 양육에는 참여하지만 자신이 생각보다 양육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도 있고, 인식과 행동의 불일치로 인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어머니 문열기와 문닫기 변인 모두 전체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어머니 문열기와 문닫기가 모두 높은 유형(Confused gate manager, Apathetic gate manager)으로 분류되어 양육에 대한 배우자 지지와 좌절을 모두 경험하는 혼합된 형태의 이중 메시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운진, 2017). 앞서 살펴본 ‘적극적 아버지형’과 비교했을 때, 어머니 문닫기 변인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힘있는 가부장형’의 특성을 구분한다. 또한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에서 남성이 자신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섭섭함이 드러난 현상과 유사하다(박은선, 손은영, 임지숙, 2016). 한편, 변인들의 전반적인 양상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양상으로 나타난 ‘소극적 아버지형’은 아버지 유형화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돌봄 범주와 시간에 있어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인 형태로 참여하거나, 양육 수행동기에 있어 소극적이거나 보조양육자로서 기능하는 아버지 유형과 유사하다(조운경, 2011; 차동혁, 2014). 특히 어머니 문열기와 어머니 문닫기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자신의 양육참여에 대해서 배우자가 관심이 없거나 양육참여를 기대하지 않는 상태 혹은 무기력한 태도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조운진, 2017).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한 아버지들은 양육에 소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아버지로의 적극적 전환이나 돌보는 남성성에 대한 경험에 있어 제한된 정체감에 위치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이 유형이 전체 연구 참여자의 30% 가까이 나타났다는 점은, 우리나라 아버지상의 사회문화

적 변화가 현재 진행 중임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부양자, 새로운 아버지 신념, 양육참여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무심한 가부장형’은 Pleck과 Pleck (1997)이 미국 아버지상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개념화한 무관심한 아버지(Deadbeat Dad)와 공통된 특성을 갖는다. 무관심한 아버지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짐처럼 여기면서 양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부양하지 않는 아버지를 의미하므로 공동양육을 추구하는 새로운 아버지와 다르다(Furstenberg, 1988). 이 유형의 아버지들은 높은 힘과 통제 및 어머니 문단기와 낮은 어머니 문열기를 보이고 있으므로, 양육참여에 대한 배우자 지지는 적게 경험하고 좌절과 통제를 더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적극적 아버지형’과 상반된 결과이며, ‘힘있는 가부장형’과 어머니 문열기 변인에서의 유의한 차이로 그 특성이 구분된다. 즉, 자신의 양육참여에 대한 배우자의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하는 정도는 ‘힘있는 가부장형’과 유사하나, 자신의 양육참여에 대한 배우자의 긍정적이거나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하는 정도는 ‘힘있는 가부장형’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으므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차이로 그 특성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상의 결과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교육 개입을 위한 제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극적 아버지형’의 아버지들에게는 가정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행동하는 남성리더쉽의 측면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상담적 개입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남성에게 지금껏 낮설었던 가정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이 효능감, 동기부여, 지속적인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슷한 유형의 아버지들과의 지지그룹을 안내하는 등 정보제공이 필요하겠으며, 장시간 근로나 일 중심적인 직장문화에 놓여있다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소진이나 피로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명상, 마음챙김과 같은 심리교육적 개입이 도움이 될 것이다. ‘힘있는 가부장형’의 아버지들은 실제 양육에는 참여하지만, 공동양육에 대한 인식은 실제 양육행동에 비해 낮으므로 자신이 생각보다 양육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과 실제행동의 불일치로 인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식을 넘어선 실제 양육행동에 대한 인정과 타당화가 제공될 필요가 있겠고, 인식과 행동 간 불일치를 줄임으로써 심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 문열기와 문단기 변인 모두 전체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보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구분하여 탐색함으로써 배우자와 공동양육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소극적 아버지형’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양육참여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를 무관심이나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체계 내에서 아버지라는 정체성과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의 모호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탐색적 개입이 제안된다. 특히, 아버지상이 내면화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인식의 더딘 변화가 남성의 새로운 아버지상이나 부부상에 대한 탐색과 성찰을 제한하게 하므로 (박은선 외, 2016), 아버지의 눈높이를 맞춘 심리상담 또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 모습의 롤 모델을 발견하도록 돕거나 양육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등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성찰을 높임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아버지상을 개발하고 이를 공동양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상담적 개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심한 가부장형’의 아버지들에게는 가족부양이나 낮은 양육참여가 어떠한 어려움에서 기인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개인과 가정 내 갈등 수준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자녀와의 놀이 활동이나 양육방법에 대한 기술적 정보 전달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유형의 아버지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평균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 정서를 해소함으로써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체계 안에서 잘 흡수되고 융화되도록 돕는 심리적 개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조사 업체에서 보유한 패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다른 표집 방법을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버지들이 포함되도록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다면, 이 연구에서 도출되지 않은 다른 잠재 집단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자기인식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실제 그 수준이나 배우자가 지각하는 정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료의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집 방법이나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부부 쌍을 활용하여 부부 간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제시

하는 연구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아버지의 정신건강은 부부 상호작용 및 부모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Barnett, Marshall, & Pleck, 1992) 아버지 유형을 예측하는 심리적 특성을 함께 살핀다면, 아버지 양육 신념과 행동, 부부 파트너십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 사용된 남성규범, 새로운 아버지 신념, 어머니 문지기 역할, 양육참여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면 변인과 대상에 대한 좀 더 정교하고 입체적인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 양육참여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양방향적인 개념으로 확장시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이영환, 2018). 그리고 이 연구에서 힘과 통제와 정서억제 요인이 양육참여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 문지기 변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므로, 이들 간의 관계에서 조절 또는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 변인들을 고려하여 아버지 양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살피는 지속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아버지 유형별 양육참여 양상을 살펴보았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집안일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과 행동을 살펴볼 것이 제안된다. 가정에서의 일에는 가사도 있는데, 전통적 남성성에는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를 포함한 집안일을 여성의 일로 여기는 현상이 있으므로 집안일에 대한 남성의 인식과 행동을 살펴본다면, 아버지의 양육 및 가사참여의 특성과 부부 파트너십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은, 김연아 (2017). 국내 아버지 관련 연구 동향-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4, 1-18.
- 김소영, 옥선화 (2000). 기혼 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9.
- 김은석 (2018). 일-가정 양립 유형화 및 일-가정 양립 촉진적 자기의 가정→일 양립에 대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성은 (2014).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내재한 젠더 위계와 ‘신 도구적’ 부성의 구성. *가족과 문화*, 26, 1-39.
- 박은선, 손은영, 임지숙 (2016).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93-1216.
- 박익새, 남은영 (2015).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이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35-153.
- 우성범 (2017). 한국 남성규범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지영 (2018). 근로 변인과 성역할 변인이 남성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4(1), 301-322.
- 이영미, 김정희 (1997). 성역할정체감, 사회적 지지 및 일상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51-365.
-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 (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노릇: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89.
- 이영환 (2018). 어머니 문지기행동 척도 개발: 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12, 23-39.
- 조윤경 (2011).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 재구성. *가족과 문화*, 23, 169-205.
- 조윤진, 임인혜 (2016). 한국판 어머니 문지기 역할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육아지원연구*, 11(2), 33-57.
- 조윤진 (2017).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공동양육 경험. *사회과학연구논총*, 33(2), 57-115.
- 제연화, 심은정 (2015). 2/30대 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31-952.
- 차동혁 (2014).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실행 유형과 영향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화영, 이기영 (2013).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5), 497-511.
- 통계청 (2018). 지역별고용조사. <http://kostat.go.kr>에서 검색.
- 통계청 (2018). 한국의 사회지표. <http://kostat.go.kr>에서 검색.
- Barnett, R. C., Marshall, N. L., & Pleck, J. H. (1992).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358-367.
- Brandth, B., & Kvande, E. (1998). Masculinity and child care: The reconstruction of fathering. *The sociological review*, 46(2), 293-313.
- Bulanda, R. E. (2004). Paternal involvement with children: The influence of gender ideologies.

-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1), 40-45.
- Cannito, M. (2020). Beyond “traditional” and “new”: An attempt of redefinition of contemporary fatherhoods through discursive practices and practices of care. *Men and Masculinities*, 23(3-4), 661-679.
- Enderstein, A. M., & Boonzaier, F. (2015). Narratives of young South African fathers: Redefining masculinity through fatherhood. *Journal of gender studies*, 24(5), 512-527.
- Field, A. (2013).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IBM SPSS statistics*. London: Sage Publications.
- Finn, M., & Henwood, K. (2009). Exploring masculinities within men's identificatory imaginings of first time fatherhood.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8(3), 547-562.
- Furstenberg, F. F. (1988).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and Public Policy. In A. J. Cherlin (Eds.) *Good dads-bad dads: Two faces of fatherhood* (pp. 193-218).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 Halme, N., Åstedt-Kurki, P., & Tarkka, M. T. (2009). Fathers' involvement with their preschool-age children: How fathers spend time with their children in different family structures. *Child & Youth Care Forum*, 38(3), 103-119.
- Harrington, B., Fraone, J. S., Lee, J., & Levey, L. (2016). *The New Millennial Dad: Understanding the Paradox of Today's Fathers*. Boston, MA: Boston College Center for Work & Family.
- Humberd, B., Ladge, J. J., & Harrington, B. (2015). The “new” dad: Navigating fathering identity within organizational context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30(2), 249-266.
- Johansson, T., & Klinth, R. (2008). Caring fathers: The ideology of gender equality and masculine positions. *Men and masculinities*, 11(1), 42-62.
- Kaya, A., Iwamoto, D. K., Brady, J., Clinton, L., & Grivel, M. (2019). The role of masculine norms and gender role conflict on prospective well-being among men.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ies*, 20(1), 142-147.
- Kwon, Y. I., & Roy, K. M. (2007). Changing social expectations for work and family involvement among Korean father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8(2), 285-305.
- Lamb, M. E. (2000). The history of research on father involvement: An overview.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23-42.
- Lubke, G., & Muthén, B. O. (2007). Performance of factor mixture models as a function of model size, covariate effects, and class-specific paramete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1), 26-47.
- Marsiglio, W., Day, R. D., & Lamb, M. E. (2000). Exploring fatherhood diversity: Implications for conceptualizing father involvement. *Marriage & Family Review*, 29(4), 269-293.
- Marsiglio, W., & Roy, K. (2012). *Nurturing dads: Social initiatives for contemporary fatherhood*.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McLaughlin, K., & Muldoon, O. (2014). Father identity, involvement and work-family balance: An in depth interview study.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4(5), 439-452.
- Mertler, C. A., & Vannatta, R. A. (2001). *Advanced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 Practic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Los Angeles, CA: Pirczak Publishing.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Petts, R. J., Shafer, K. M., & Essig, L. (2018). Does Adherence to Masculine Norms Shape Fathering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0(3), 704-720.
- Pleck, J. H. (1985). *Working wives, working husband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Pleck, E. H., & Pleck, J. H. (1997). Fatherhood ideals in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dimensions. In M. E. Lamb (Eds.),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 33-48).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 Pleck, J. H. (1998). American father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K. V. Hansen & A. I. Garey (Eds.), *Families in the US: Kinship and domestic politics* (pp. 351-361).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Pleck, J. H. (2010). Fatherhood and masculinity.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 27-57).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Schoppe-Sullivan, S. J., Brown, G. L., Cannon, E. A., Mangelsdorf, S. C., & Sokolowski, M. S. (2008). Maternal gatekeeping, coparenting quality, and fathering behavior in families with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389-398.
- Silverstein, L. B., Auerbach, C. F., & Levant, R. F. (2002). Contemporary fathers reconstructing masculinity: Clinical implications of gender role strai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3(4), 361-369.
- Tein, J. Y., Cox, S., & Cham, H. (2013). Statistical power to detect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latent profil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4), 640-657.
- Thompson, E. H., Pleck, J. H., & Ferrera, D. L. (1992). Men and masculinities: Scales for masculinity ideology and masculinity-related constructs. *Sex roles*, 27(11-12), 573-607.
- Vermunt, J. K., & Magidson, J. (2003). Latent class models for classification. *Computational Statistics & Data Analysis*, 41(3-4), 531-537.

원고접수일 : 2020. 02. 03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9. 16

게재결정일 : 2020. 10. 28

## Latent Profile Analysis of Korean Fathers' Masculinity and Fatherhood

**Seul-ki Lee**

**Sung-Kyung Yoo**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stude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latent classes among Korean father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6, based on 5 subscales of Korean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family support, male leadership, power and control, job independence, and emotion suppression), and new fatherhood beliefs. Additionally, the differences between mothers' gate-keeping and father's involvement in child-care were explored in each of the classified groups. The analysis identified four latent classes: Active Father, Transient Father, Domineering Father, and Neglectful Father. Those classified as Active Father who accounted for 42.1% of participants, scored highest on family support and new fatherhood beliefs, but lowest on power and control. This group was higher than any other latent class in terms of father's involvement.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for therapeutic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are discussed,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Key words* : new fatherhood, masculine norms, coparenting, maternal gatekeeping, latent profile analysis